

TDB 경기동향조사 (전국) - 2017년 3월 조사 -

2017년 4월 5일

주식회사 테이코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HP http://www.tdb-d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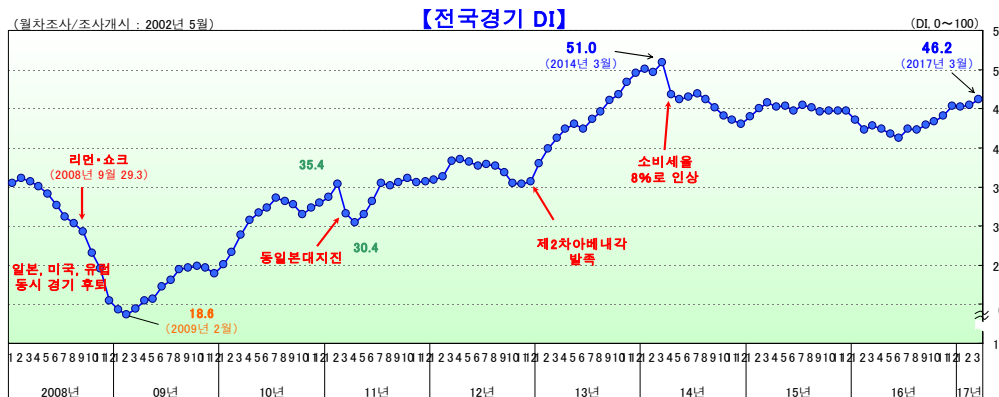
자동차생산과 인력부족대책을 배경으로 회복

~ 성력화(省力化)를 고려한 설비투자수요가 증가 ~

(조사대상 2만 3,929사, 유효회답 1만 305사, 회답율 43.1%,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1. 경기DI는 전월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46.2로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구인수 증가와 함께 '가치소비'(일본어로는 코토 소비)수요의 영향을 받은 『서비스』가 1년 7개월 만에 50대로 회복되었다. 국내경기는 생산이나 부품수출과 같은 자동차관련의 호조나 성력화(省力化) 등 인력부족대책의 수요증가 등을 바탕으로 회복세가 지속되었다. 향후의 경기는 수출의 호조 및 도쿄올림픽에 대비한 건설투자가 본격화 됨에 따라 완전한 회복이 지속될 전망이다.
2. 『제조』『소매』『서비스』등 7개 업계가 개선, 『부동산』등 3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서비스』는 사업자부문과 개인부문 양측 모두 호조로, 체감경기는 7개월 연속으로 상승하였으며 1년 7개월 만에 50대로 회복되었다. 또한 자동차부품관련의 생산·판매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로 추이하여 경기전체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다.
3. 『키타칸토』『호쿠리쿠』『쥬고쿠』등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개선, 『시코쿠』『큐슈』2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관광·비즈니스여행객의 증가가 플러스재료가 되었으며, 전국적인 자동차판매의 호조가 관련부품 등의 생산지역의 체감경기를 끌어올렸다. 규모 별로는 「중소기업」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규모 간 격차는 3개월 연속으로 축소되었다.



< 2017년 3월의 동향 : 회복세가 지속 >

2017년 3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0.8포인트 증가한 46.2로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3월의 국내경기는 견조한 국내자동차 생산과 동 부품 및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수출증가, 인력 부족을 배경으로한 성력화 설비수요의 증가 등을 바탕으로 『제조』가 개선되었다. 또한 인력부족의 심각화로 구인율이 높은 수준으로 추이한 점이 영향을 미친 「인재과전」 이외에, 소비자의 「가치소비(コト消費)」 및 계절수요의 영향을 받은 「음식점」과 「전통여관·호텔」 「오락서비스」 등을 포함한 『서비스』가 7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으며 1년 7개월 만에 50대로 회복되었다. 또한 외환시장의 안정도 기업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국내경기는 자동차관련의 호조나 인력부족대책의 수요증가 등을 배경으로 회복세가 지속되었다.

< 향후의 전망 : 완만한 회복이 지속 >

향후 미 트럼프정권의 정책이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미 정부와 의회와의 정책조정이 난항인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거듭되는 금리상승의 내용과 미일경제대화회의 동향이 주목된다. 또한 유럽선거와 영국의 EU이탈교섭에 대한 행방 등 해외발 리스크를 다수 떠안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국내에서는 근로개혁의 실행계획이나 고용·소득환경의 개선과 함께 임금수준의 상승이 개인소비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진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인한 수출 및 생산확대 그리고 도쿄올림픽개최를 위한 건설투자의 본격화와 보정예산의 집행이 경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 트럼프정권이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도 향후의 경기는 수출호조와 도쿄올림픽에 대비한 건설투자의 본격화를 배경으로 완만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